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 ✓ 수에즈 운하를 20,388TEU 급 컨테이너선이 가로막음
- ✓ 정상화 시점 미지수며 이미 100 여척 선박이 대기 정박 중임
- ✓ 이에 아시아 - 유럽 노선 SCFI 변동성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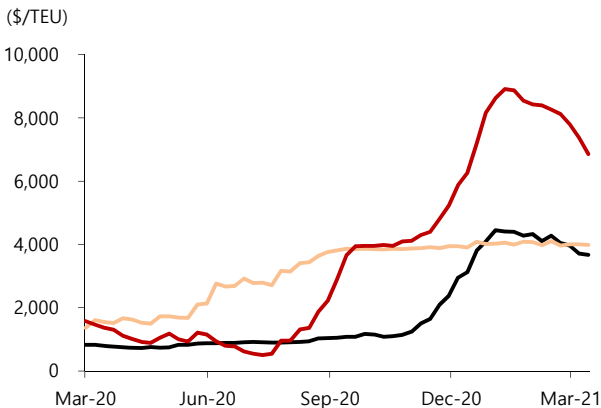
수에즈 운하 사고로 컨테이너선 운임 단기 변동성 확대 전망

대만 에버그린이 소유한 파나마 선적의 에버 기븐(Ever Given)이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는 사고가 발생함. 에버 기븐은 20,388TEU 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너비 59m, 길이 400m 에 이룸. 중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로 가는 중에 발생한 사고임. 대각선으로 놓여 있는 선박 예인을 위해서 선박 하단 모래를 파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컨테이너 박스를 내려야 할 수도 있음. 수에즈 운하는 일 평균 51 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10% 수준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미 100 척 수준의 선박들이 운하 안팎에서 대기 정박 중임. 정상화 시점은 현재 미지수임.

이에 최근 정채 중이거나 하락세인 컨테이너선 운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특히 수에즈 운하가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노선의 주요 항로이기 때문에 SCFI 기준 상해 - 유럽 노선 운임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남아공의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시아 - 유럽 노선의 소요 시간이 최소 1 달 이상 늘어나게 됨. 이에 일부 화물들의 경우 항공 화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음.

노선별 SCFI 추이

- SCFI Shanghai-Europe (base port) Freight Rate
- SCFI Shanghai-WC America (base port) Freight Rate
- SCFI Shanghai-S America (Santos) Freight Rate



자료 : Clarksons Research, SK 증권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고 있는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



자료 : maritimebulletin.net,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